

양도세 면적제한, 형평성 논란에 사실상 폐기

여야 정치권 85㎡ 기준 없애기로...광주·전남 쏠가구 혜택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기준을 없애고 9억원 이하 가구에 모두 적용할 경우 아파트 기준 전체 가구수의 98%가 1가구 1주택 등의 요건을 갖추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던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696만9046가구 가운데 시세 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총 682만3551가구로 전체의 97.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당초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한정했지만 9억원 이하 중대형이 많은 수도권과 지방의 하우스푸어 주택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앞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에 따르면 전국 637만8891가구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조사한 결과 118만6366가구가 나타났다. 정부의 당초 안이 진행되면 이 가운데 광주지역은 4만4679가구가, 전남지역은 1만336가구가 양도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여야 정치권은 실제 양도세·취득세 혜택의 면적기준을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최근 당 내부 회의를 거쳐 양도세 혜택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면적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제한이 없어질 경우 전체 아파트의 약 97.9%가 1가구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 요건을 갖추면 이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당초 정부가 밝힌 '9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은 557만6864가구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수혜 대상이 18% 이상 늘어나

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9억원 이하 또는(or) 전용 85㎡ 이하'로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이면서 9억원 초과인 주택 12만3702가구(1.78%)만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며 전체의 98.2%가 혜택을 보게 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현재의 'and' 조건을 'or' 조건으로 바꾸거나 면적 제한을 없애면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주택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서민을 배려하지는 취지의 애초 정책 목표와 맞지 않게 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기아차 62만대 성공 기원 산행 기자들 광주1공정 임직원들이 7일 담양 금성산성에 올라 기아차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성공 기원 산행을 실시하고, 신차 '올 뉴 카렌스'의 성공적 양산을 결의했다. <기자들 취재>

전남 건설업체 4곳중 1곳 부적격 업체 6개월 실사...107곳 곧 영업정지 등 처분

전남지역 종합건설업체 4곳 중 1곳이 부실·불법업체로 드러나 무더기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7일 전남도는 "최근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업체 107곳을 적발해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도내 4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쳤으며 이 가운데 25.2%인 107곳이 부적격 업체로 드러났다. 부적격 업체는 자본금 미달 79곳, 기술자 부족 등 기술력 미달 30곳, 사

무실 요건 미흡 1곳, 자료 미제출 3곳 순이었다. 이 가운데 6곳은 자본금 미달과 기술자 부족 등이 중복됐다. 전남도는 5월 중으로 청문을 거친 뒤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단행하기로 했다. 등록기준 미달이 1년이 안 된 78곳은 영업정지를, 3년 이내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29곳은 건설업 체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 심화로 부실·불법업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은행 식목일 나무심기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5일 제68회 식목일을 맞아 광주 서구청(구청장 김중식)과 풍암생활체육공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해 녹색금융 선도은행으로서 모범을 보였다. <광주은행 제공>

지역 농축산물 싸게 사세요

농협 광주본부 12일 '직거래장터' 개장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는 12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매주 금요일 도농상생 '농축산물 금요일 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광주지역 농축산물 팔아주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농축산물 금요일 직거래장터' 개장을 통해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 판매를 늘려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장터에서는 미나리, 토마토, 딸기를 비롯한 제철 농산물과 한우,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을 시중가 대비 10~20% 저렴하게 판매한다. 박태식 본부장은 "개장식 날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서 품으로 제공하는 등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 다채로운 사은행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직거래 장터는 연말 김장 시장까지 개장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3월 아파트 경매건수 전국 최저

지난달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건수는 물론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경매전문 업체 '지지옥션'(www.ggi.co.kr)이 3월 광주·전남 지역의 경매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 아파트 경매건수 건수는 4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전년 동월(77건)에 비해 37건이나 적었다.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가 없어 응찰자는 7.8명으로 전년 동월(5.5명)보다 2.3명 많았다. 3월 광주지역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각각 57.5%, 93.3%로 전국평균 41.6%, 79.0%보다 15.9%포인트, 14.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 1위는 광산구 월계동 첨단과학산업단지금광아파트가 차지했다. 17명이 몰려 감정가 대비 104%에 낙찰됐다. 낙찰가율 부문은 북구 동림동 유일가든 아파트가 차지했다. 3명

이 응찰해 감정가 대비 110%에 낙찰됐다. 전남의 아파트 경매건수는 69건 중 16건만 낙찰률 23.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여수시 울촌면 월산리 동양엔파트 아파트 15건이 나왔으나 모두 유찰됐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3 12 13 15 34 36	1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989,365,250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89,266,390	26
3 5개 숫자 일치	1,647,216	1,409
4 4개 숫자 일치	50,000	72,629
5 3개 숫자 일치	5,000	1,234,194

작년 국내기업 10곳중 3곳 영업이익으로 이자 못막아

지난해 국내기업 10곳 중 3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흥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2월 결산인 국내 비금융 상장기업 1510개의 실적을 분석해 7일 내놓은 '2012년 국내기업 경영성과, 글로벌 기업보다 낙후됐다'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며 부채상환 능력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은 국내 기업의 비중은 31.6%로 전년도의 27.7%보다 늘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

올 임금상승률 4.5%...작년보다 낮아져

올해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률은 4.5%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임금상승률에 대한 기저효과와 지난해 2.0% 성장에 이어 올해도 목표치가 2.3%로 낮아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올해 임금인상 수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동연구원 측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상승률은 4.5%로 전년 동기 한국노총은 4.5%포인트 낮고 8.1%, 민주노총은 0.4%포인트 낮고 8.9%를 제시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훨씬 낮은 상승률을 전망하기도 했다. 현대증권은

교하면 한 달 후퇴할 수준이다. 노동연구원 측은 "국민경제 생산성에 근거해 볼 때 적정 임금인상률은 4.0%지만, 그밖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 여건, 노사관계,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4.5% 수준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연구원 측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완만하게 회복되더라도 임금상승률이 2012년 수준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한국노총은 작년보다 1%포인트 낮은 8.1%, 민주노총은 0.4%포인트 낮고 8.9%를 제시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훨씬 낮은 상승률을 전망하기도 했다. 현대증권은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 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광주·전남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신제품 기적궁합가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